# "2020년, '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

## 도, 가로등·방범용CCTV 획기적 투자 안심제주 조성
## 3년간 561억… 야간 불안요소 해소·도민 안전망 구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2020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안전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밤거리 불안요소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확충에 3년에 걸쳐 총사업비 561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예산 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밤거리를 밝게 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향후 2년간(2020~2021년) 신규 CCTV 설치와 관제기반 시설 확충, 스마트관제 추가 도입에 총 185억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읍면동과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신규 CCTV설치 수요조사를 시행해 총 545개소 2453대의 수요를 접수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에서는 체감 치안 향상 대책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대폭 확충의 필요성 역시 중점 논의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20~2021년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방범용 CCTV 및 관련 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2020년에는 CCTV설치 273개소 1229대에 대한 시설비 73억9000만원, CCTV관제센터 내 통신장비 및 보안장비 확충에 10억원,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에 13억5000만원 등 총 97억40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어 2021년에는 CCTV설치 272개소 1224대에 73억6000만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13억5000만원 등 총 87억1000만원 상당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가로등·보안등 설치와 관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7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매년 1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예방 우려 구간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 전면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CCTV와 가로등 확대 설치가 완료되면 밤거리 불안 해소로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제주119 심정지환자 소생률 5.1%

## 최근 5년 소생률 증가세
## 전국평균보단 소폭 낮아

제주소방의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3221명이 심정지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165명이 목숨을 구해 5.1%의 소생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6%보다 1.5%p 낮고, 전국적으로는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9.7%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3.2%의 전라남도였다.

제주의 소생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2%, 2015년 6.08%, 2016년 6.16%, 2017년 4.6%, 2018년 6.44%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은 7분으로 가장 빠른 광주(6분)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가장 느린 지역은 소생률이 가장 낮았던 전남(10분)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간 소방력 격차에 의해 골든타임을 놓쳐 심정지환자의 생사가 갈린다면 이것은 인재"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법원 "피해자 크게 다쳐"

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서 벌초에 나선 A(42)씨의 오른쪽 다리에 전기톱을 휘둘러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소 주변에 나무가 쌓여있는 문제로 A씨가 항의하자 김씨가 전기톱을 휘두른 것인데, 당시 A씨의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전기톱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장애 가능성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엔진톱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장애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 동물테마파크 반대 단체 "사업자는 진실을 밝혀라"

## 마을이장 "불법선거 대응"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측은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쪽으로 온 '선흘2리 마을 향약 검토의 건'이라는 문건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을 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 로펌에 의뢰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대대책위 위원 한 명이 찬성 측 인사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그런데 내용증명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우체국장의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이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측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흘2리 마을리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열린 이장 보궐 선거 등과 관련 형사상 강경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주민들의 불법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장 보궐 선거 강행 등 마을 분란만 조장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임금제 이행,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상국기자

# 학교비정규직 17~18일 총파업 예고

## 공정임금제 이행 촉구
## 급식과 돌봄 차질 우려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 임금제 이행,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재차 예고했다. 전국적인 파업에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제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추산)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2019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성의 있는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 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까지 양보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 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당시에 약속한 성실교섭도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불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적어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인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와 지역별 차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협의'로 모아가는 게 결국 노사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해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오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지은기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다락방 화재 3500만원 피해

## 14일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만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도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과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다.

접종대상자는 6900여명이며,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10일 새벽 0시28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단독주택 다락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 사진

이 화재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락방과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 1,2,3년생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궁천 ..... 1,2,5년생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하례조생 .....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탐나는봉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